

사회적 담론에 관한 SNS 사용자의 의견표명 동기요인에 관한 연구: 자기검열과 자기감시를 중심으로*

신동인(주저자)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 전문대학원
(ggang982@gmail.com)

곽기영(교신저자)
국민대학교 경영대학/비즈니스IT 전문대학원
(kykwahk@kookmin.ac.kr)

본 연구는 침묵의 나선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담론에 관한 SNS 사용자의 의견표명 동기요인을 도출하고, 여론분위기에 따라 개인이 소셜미디어상에서 사회적 목소리를 내거나 침묵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의견표명 동기요인으로서 지각된 의견지지,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자기검열, 자기감시를 제시하였고, 자기검열과 자기감시가 각각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하였다.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SNS를 사용하는 전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PLS(Partial Least Square) 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각된 의견지지는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에 부의 영향을 주었으며,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은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침묵의 나선이론의 기본 가설이 지지되었다. 더불어서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은 자기검열과 자기감시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변수가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에 이르는 경로는 전자는 부의 영향, 후자는 정의 영향으로 나타나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침묵의 나선이론에서 간과되어온 이론적인 한계를 규명하고 이를 보완하여 여론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소셜미디어 환경에서의 개인의 의견표명 과정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인과관계 메커니즘을 실증하였다.

주제어: 침묵의 나선이론(spiral of silence theory), SNS, 자기검열, 자기감시, 사회적 담론, 의견표명

I. 서론

2016년 11월에 실시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예상을 넘어선 승리를 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트럼프 승리의 이면에는 침묵을 지키며 지지표를 던진 유권자들이 있었고, 이들을 가리키는 샤이 트럼프(Shy Trump)라는 단어는 워싱턴포스트와 같은 국제적인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어 특정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세계적인 용어가 되었다. 샤이 트럼프의 샤이는 사

전적 의미로서 수줍음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닌 사회적 담론이나 찬반의 논쟁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꺼리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개인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속담 중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의 뜻처럼 트럼프를 상대로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예상했던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들과 SNS를 가득히 채웠던 예상들이 빛나감에 따라 여론(public opinion)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새롭게 재조명 되고 있다. 여론은 비단 정책이나 선거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기업의 경영관점에서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발

생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 논란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기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해당 제품과 기업에 대한 신뢰 및 평판이 손상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해당 사건은 긍정적인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이 더욱 빠르게 전파되고, 이러한 정보가 소셜미디어와 결합되었을 때 파급력이 커지며, 사회적 담론에 관해 목소리를 내는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영향력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즉 기업이나 조직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 차원에서 다뤄지거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될수록 여론과 같은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여 기업의 경영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여론형성 과정을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사회적 담론에 대한 개인의 의견표명 과정을 오늘날의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본다.

독일의 정치학자 노엘레노이만(Noelle-Neumann)은 침묵의 나선이론(the spiral of silence)을 통해서 사회적 담론과 관련하여 개인이 의견표명을 꺼리는 이유로 자신의 견해와 다수의 견해 간에 괴리가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Noelle-Neumann, 1993). 이를 거꾸로 표현하면 개인이 적극적으로 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자신의 견해와 다수의 견해 간에 차이가 없다고 여기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침묵의 나선이론은 여론형성 과정과 관련하여 지난 40여 년간 미시적이면서도 거시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제공하여 왔다. 다수 여론의 향방에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개인의 공개적 의견표명 과정이 개인에게 내재한 사회적 고립의 두려움(fear of isolation)으로부터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Noelle-Neumann, 1993). 침묵

의 나선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현재 또는 미래의 의견분위기가 자신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우세하다고 여길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표명을 할 의지가 높아지지만, 소수 여론 또는 하강중인 의견으로 여길 경우 고립의 두려움을 느껴 침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우세하게 지각된 의견은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역으로 소수의견으로 지각된 경우 표현이 자제되는 과정을 거쳐서 사회 전체의 여론분위기가 형성된다(Noelle-Neumann, 1993; Scheufele and Moy, 2001; Shoemaker, Breen, and Stamper, 2000). 침묵의 나선이론과 고립의 두려움 개념은 사회와 개인의 행태에 대한 직관적인 통찰을 제공해주지만 개인의 복잡다단한 의견표명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소셜미디어상에서의 침묵의 나선효과를 검증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담론에 대한 의견표명은 가까운 준거집단에서보다 SNS상에서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진다(Hampton, Rainie, Lu, Dwyer, Shin, and Purcell, 2014). 이는 오프라인 관계망을 포함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열린 공간으로 작동하는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익명성을 담보했던 온라인 채팅과 같은 초창기의 CMC(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s) 환경과 달리 고립의 두려움이 SNS상에서 작동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1970년대의 미디어 환경을 배경으로 탄생한 침묵의 나선이론이 오늘날 개인의 일상에 깊숙이 퍼져나가는 소셜미디어 환경과 그 특성에 따른 사용자 행동 및 의견표명 과정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이론에 관한 비판적인 연구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특히 고립의 두려움뿐만이 아닌 소셜미디어상에서의 의견표명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변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침묵의 나선이론에서 간과되어온 이론적인 한계를 규명하고 이를 보완하여 여론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둘째, 소셜미디어 환경에서의 개인의 의견표명 과정에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인과관계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침묵의 나선이론

침묵의 나선이론은 동조현상을 수반하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개인의 공개적 의견표명과 사회 내 여론형성 과정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하여 설명한다. 1974년 독일의 학자 노엘레노이만이 처음 주창한 이론으로, 사람들은 사회 내에서 자신의 견해가 우세한 다수의견에 속하면 공개적으로 의견표명을 하고, 그렇지 않은 소수에 속할 경우 침묵을 지킨다는 것이 기본 가설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다수에게 지지 받는 의견은 더욱 더 힘을 얻게 되고, 소수의견은 점차 힘을 잃게 됨에 따라 다수 여론이 형성되는 모습을 나선의 모양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Noelle-Neumann, 1993). 노엘레노이만은 이러한 개인의 의견표명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인간이 지닌 근원적인 심리작용으로 사회적 고립의 두려움을 내세워 설명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사회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다수로부터 오는 동조 압력에 끝내 순응하게 된다. 사람들은 고립의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 여론의 향방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구분하

는 능력(quasi-statistical ability)을 지녔으며 미디어를 통해서 여론분위기(climate of opinion)를 파악한다(Noelle-Neumann, 1993; Hayes, Matthes and Eveland, 2013). 개인이 사회적 쟁점에 대한 다수의 지지와 소수의 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며 여론의 향방을 감지할 수 있음은 침묵의 나선이론의 중요한 전제 중 하나로, 개인은 이러한 추측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의견표출 정도를 조절한다. 예를 들어, 선거에 있어서 개인은 미디어를 통한 광범위한 뉴스보도 및 여론조사 결과와 개인적인 경험 등을 지표로 삼아 사회 안의 의견 분포에 대한 상당히 정확한 추측을 한다(Price and Allen, 1990).

침묵의 나선이론의 관점에서 사회적 통제로서 작동하는 여론을 설명할 때 매스미디어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TV나 라디오는 사회적인 여론분위기를 읽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노엘레노이만의 침묵의 나선이론은 여론형성 과정에서 매스미디어 효과와 역할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강효과 모델(powerful effects model)로 분류된다(Salmon and Kline, 1985). 노엘레노이만이 이론을 주창했던 당시의 기존 연구나 이론들에서는 실험연구를 통한 단기적 효과만을 주로 다룸으로써 매스미디어의 강력한 효과를 과소평가 내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Noelle-Neumann, 1973).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엘레노이만은 당시 독일에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형제도 문제에 관한 개인의 견해와 여론분위기를 1971년, 1975년, 1977년에 걸쳐 조사하였다. 세 차례의 조사를 분석한 결과 해당 담론에 대한 개인의 견해와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지지하는 여론분위기의 변동성이 상당히 일치하였다(Noelle-Neumann, 1979). 노엘레노이만은 이러한 현상의 근거로 뉴스 보도를

통한 사회적 담론의 논조 변화를 지목하여 여론형성 과정에서의 매스미디어의 효과와 영향력을 편재성(ubiquity), 공명성(consonance), 누적성(cumulation)을 통해서 제시하였다(Noelle-Neumann, 1977).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같은 인터넷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침묵의 나선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Gearhart and Zhang, 2014; Hampton et al., 2014). 대표적으로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실시한 SNS상의 침묵의 나선효과에 관한 연구 조사결과에 따르면 페이스북 사용자 중 페이스북 친구들과 대체로 견해가 비슷하다는 사람이 스노든 폭로 사건에 대한 온라인 대화에 참여할 확률은 견해가 다르다는 사람보다 1.9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mpton et al., 2014). 또한 스노든 폭로 사건에 대해 면대면으로 토론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은 86%인 반면 SNS상에서 관련 토론을 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사람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오프라인과 소셜미디어상에서의 의견표명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Hampton et al., 2014). 이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Marwick and Boyd(2011)가 지적했듯이 SNS상에서 자기노출(self-disclosure)은 잠재된 청중의 범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증거 집단이 복잡하게 존재하며 불특정한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SNS 환경으로 인해 개인의 의견표명의 차이가 발생한다. 둘째, 그러한 SNS 환경에서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회적 담론에 쉽게 노출됨에 따라(Rainie and Smith, 2012), SNS 사용자는 노엘레노이만이 지적한 여론분위기에 대한 일치 및 불일치를 겪을 확률이 높아질뿐더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는 것에 따르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의식하여 실제 의견표명의지가 매우 감소한다(Noelle-

Neumann, 1993).

침묵의 나선이론이 발표되고 40여년이 지났음에도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Neuwirth, Frederick, and Mayo(2007)는 침묵의 나선이론의 주요 변수들과 추가적으로 발굴한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Dalisay, Hmielowski, Kushin, and Yamamoto(2012)는 사회적 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과 침묵의 나선이론의 접점을 통해 이론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국가 간 비교문화 연구(Matthes, Hayes, Rojas, Shen, Min, and Dylko, 2012) 등 다양한 후속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2.2 고립의 두려움 성향

노엘레노이만은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침묵의 나선효과의 핵심 동력으로 보았다. 고립의 두려움은 한 사람이 속한 공동체나 사회에서 다른 이들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받거나 판단됨에 따라 평판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고립의 두려움에 대한 정의는 비단 침묵의 나선이론에서만 확인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인이 경험하는 외로움, 공동체 내에서의 결핍, 홀로 남겨짐, 간헐 또는 격리 등의 상황에 따른 사회적인 고립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이 고립의 두려움의 범주에 속한다(Baumeister and Leary, 1995; Gilbert, Fiske, and Lindzey, 1998; Walters, Marshall, and Shooter, 1960). 노엘레노이만은 고립의 두려움이란 개념이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공유되었음을 여러 저작들과 역사적 통찰을 통해 확인하였다(Noelle-Neumann, 1993). 특히 18세기 프랑스에서 만연했던 현상인 종교모독 풍조를 강하침묵(falling silence)이라고 표현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구체제와

프랑스 혁명(L'Ancien Régime et la Révolution)' (Tocqueville, 1856)에서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고립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중을 따르게 된다고 밝혔다(Clemente and Roulet, 2015). 노엘레노이만이 결정적으로 개개인에 내재한 고립의 두려움의 존재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애시(Asch, 1955), 밀그램(Milgram, 1961) 등의 연구자들이 실시한 동조(conformity) 실험을 통해서다. 노엘레노이만은 해당 연구자들의 실험 결과에서 확인된 다수에 동조하고자 하는 개인의 심리에 주목하고,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동조 현상의 강력한 근거로 보았다(Noelle-Neumann, 1993; Scheufele and Moy, 2001). 노엘레노이만은 특히 가치 판단적이며 도덕적으로 논쟁적인 공중의 이슈들에서 침묵의 나선효과가 더욱 분명하게 작동한다고 보았다(Noelle-Neumann, 1991, 1993). 그러나 그녀의 연구에서는 고립의 두려움을 구체적인 측정변수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이후의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겨졌다(Moy, Domke, and Stamm, 2001; Willnat, Lee, and Detenber, 2002).

이러한 과정에서 과연 고립의 두려움이 침묵의 나선효과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유일 변수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후속 연구들을 통해 제기되었다. Salmon and Neuwirth(1990)는 고립의 두려움 외에 이슈에 대한 관여도(involvement)와 개인의 지식수준(knowledge)을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willingness to speak out)를 설명하는 주요 선행변수로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 밖의 많은 연구자들이 침묵의 나선이론의 핵심 종속변수인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를 설명하는 또 다른 변수들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대표적으로 Kim, Han, Shanahan, and Berdayes(2004)는 정치

적 흥미(political interest), Huang(2005)은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Neuwirth et al.(2007)은 의사소통 불안감(communication apprehension), Hayes, Glynn, and Shanahan(2005a, 2005b)은 자기검열(self-censorship), Matthes, Rios Morrison, and Schemer(2010)는 태도의 확신성(attitude certainty) 등을 통해서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를 설명하였다.

2.3 자기검열과 자기감시

자기검열(self-censorship)은 자신의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되는 청중에게 자신의 진짜 의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말한다(Hayes et al., 2005b). Hayes et al.(2005a, 2005b)은 자기검열에 관한 개념적인 정의와 침묵의 나선이론과의 관계, 척도의 구체화 등을 본격적으로 제시하였다. Hayes et al.(2005a)의 연구는 자기검열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시도하고 자기보고식(self-reported)의 8개 설문 항목을 도출하여 여타 다른 변수들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기검열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서 자기검열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였고 자존감은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ayes et al.(2005b)은 여론분위기를 조작하는 실험 환경을 조성하여 참가자들의 의견표명과 자기검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여론분위기의 차이에 따라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기검열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Hayes et al., 2005b). Hayes, Scheufele, and Huges(2006)은 여러 가지 변수들—정치적 흥미(interest in politics), 정치적 이데올로기(political ideology), 이데올로기적 극단성(ideological extremity), 정치 효능감(political efficacy), 정치 뉴스 집중도(attention to political news), 성격적 부끄러움(dispositional shyness), 정치적 토론 참여 빈도(frequency of political discussion)—을 통제한 조건에서 자기검열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관찰 가능한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욱 삼가하는 것을 밝혔다.

자기감시(self-monitoring)란 사회적 상황이나 대면적 관계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호의적이고 바람직하게 여겨지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즉각적인 상황 요소에 맞춰 조절하고 통제하며 관찰하는 능력과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Snyder, 1974; Snyder, Gangestad, and Simpson, 1983; 김효준 · 박기영, 2014). 자기감시가 높은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싼 상황적 단서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 선택을 통제하는 반면, 자기감시가 낮은 사람들은 사회적 단서들에 덜 민감하며 자신의 내적 기준이나 정보에 근거하여 자기표현(self-presentation)을 수정한다(Snyder, 1974). 자기감시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개인의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자기감시에 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졌지만 4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영, 광고, 마케팅, 소비자 연구 등 수많은 학문분야에서 해당 변수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Gangestad and Snyder(2000)는 자기감시가 포함된 다양한 학문분야의 주

제를 무려 15가지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개인의 의견표명과 관련하여 침묵의 나선이론과 관련성을 갖는 관점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① 표현 통제, ② 사회적 단서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능력, ③ 개인적 태도, 자기지식, 태도-가치 관계의 접근성, ④ 사회적 태도와 대중 행동 사이의 일치, ⑤ 타인의 기대에 영향을 받는 경향성, ⑥ 상황적인 특성 또는 성격적 특성에 따라 행동과 판단을 맞추기 위한 성향.

자기검열과 자기감시는 개념상으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Hayes et al., 2006). 우선 각각의 변수들이 다뤄진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배경에 차이가 있다. 자기검열은 주로 침묵의 나선이론 관점에서 여론분위기에 따라 사회적 담론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표명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관점에서 다뤄졌다(Hayes et al., 2005a, 2005b; Matthes et al., 2012). 반면에 자기감시는 자기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인상관리이론(impression management theory)을 바탕으로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Fandt and Ferris, 1990; Leone and Corte, 1994; Turnley and Bolino, 2001; Rosenberg and Egbert, 2011). O'Cass(2000)는 Lennox and Wolfe(1984)의 자기감시 척도 구성을 자기감시 능력(self-monitoring ability)과 자기감시 민감성(self-monitoring sensitivity)의 두 요인으로 파악하였는데, 인상관리를 목적으로 전자는 실제적인 자기표현 능력의 정도를 드러내고 후자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 상황을 관찰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정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자기검열과 자기감시의 목적성이 분명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자기감시의 행동 전략으로서 자기검열이 몇몇 상황에서 선택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기검열이 반드시 자기감시로서 작동되지는 않는다

(Snyder, 1974). 뿐만 아니라 Snyder(1974)는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검열과 자기감시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Snyder(1974)의 자기감시 척도를 수정한 Lennox and Wolfe (1984)의 자기감시 척도의 항목 중 일부가 자기검열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Hayes et al., 2006), 자기검열의지(willingness to self-censor)와 자기표현 수정 능력(ability to modify self-presentation) 사이에 구조적인 관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Hayes, Glynn, Shanahan, and Uldall, 2003). 자기감시는 주변의 상황조건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맞추어 자기표현을 조절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이는 자기표현 수정 능력과도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즉 자기감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자기표현과 관련한다는 점에서 이는 자기검열과 자기감시의 개념적 차이를 보여준다.

III. 연구모델 및 연구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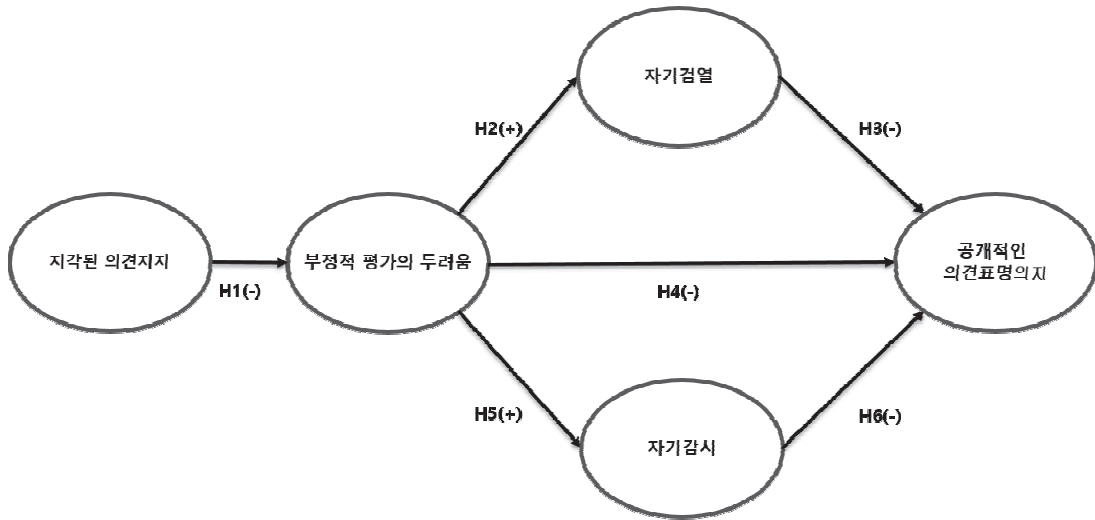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상에서 발생하는 침묵의 나선현상을 자기검열과 자기감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사회적 담론에 관한 개인의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침묵의 나선이론에 따르면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에 관한 개인의 지각된 의견지지는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그 정도에 따라 사회적 담론에 관한 개인의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가 변화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영향관계 속에서 자기검열과 자기감시의 역할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델을 제시한다.

3.1 지각된 의견지지와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노엘레노이만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견해를 소수 의견으로 지각하여, 인기가 없고 지지받기 어려운 전망을 의견표명 하는 것이 사회적 고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함에 따라 침묵의 나선효과가 시작된다(Noelle-Neumann, 1977).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지각된 의견지지와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지각된 의견지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견이 다수로부터 지지 받으며, 다수 여론에 속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말한다(Dalisay et al., 2012; Shoemaker et al., 2000). Shoemaker and Breen(2000)과 Kim and Markman(2006)은 사회적 고립의 두려움에 대한 측정변수로 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을 사용하였다.

Mutz and Silver(2014)에 따르면 자기 자신이 다수에 속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의견표명 과정에 있어서 안전함(feel safe)을 느낀다고 한다. 반대로 다수에 속하지 못할 경우 주변의 관찰자들로부터 예상될 수 있는 비판과 공격,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정치적 참여 행동을 자제하고 의견표명을 주저할 수 있다(Hayes et al., 2006). 따라서 사회적 담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다수로부터 지지받는다고 느낄수록 더욱 넓은 심리적인 준거점을 확보하기 때문에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 또는 논쟁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로부터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다.

Schlenker and Leary(1982)는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을 사회적 불안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타인을 대상으로 인상관리를 하고자 하는 목표가 주어졌을 때, 사회적 불안의 정도는 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부의 관계를 가지며, 개인이 지각하거나 예상하는 목표



〈그림 1〉 연구모델

달성 기준과 실제적인 타인의 반응이 불일치한다고 지각할수록 그 정도가 커진다. 사회적 담론에 대한 견해는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찬성 또는 반대 등의 입장을 지니며 이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이미지와 인상을 형성한다. 자신이 준거점으로 삼는 특정한 견해와 그것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 격차가 클 것으로 지각할수록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며, 자신의 견해를 말함으로써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시도가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감소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맥락에 따라 개인의 지각된 의견지지 높을수록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1: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지각된 의견지지는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과 자기검열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비판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말한다(Watson and Friend, 1969). Watson and Friend(1969)에 따르면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은 사회적 인정 상실에 대한 두려움(fear of loss of social approval)과 의미론적으로 동일하다. 자기검열은 자신의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지각되는 청중에게 침묵을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Hayes et al., 2005a). Hayes et al.(2005b)은 실험 참가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여론분위기를 적대적인 분위기와 우호적인 분위기로 조작하여 참가자들의 의견표명 과정과 자기검열 태도를 살펴보았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여론분위기에 대한 조작에 따라 참가자들의 자기검열에 대한 변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견표명에 앞서 비판받을 수 있는 비우호적인 여

론분위기에서 참가자들의 자기검열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이 높을수록 자기검열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Matthes et al.(2012)은 Hayes et al.(2005a, 2005b)의 연구를 발전시켜 본격적으로 고립의 두려움과 자기검열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실증하였다. 해당 연구는 4개 대륙 9개 나라에서 2200명이 넘는 온라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중국을 제외하고 고립의 두려움과 자기검열 간의 정(+)의 상관관계를 실증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2: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은 자기검열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자기검열과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Hayes et al.(2005b)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검열은 의견표명의지를 예측하는 선행요인으로서 자기검열이 높을수록 의견표명의지는 감소한다. 더불어서 개인의 견해에 우호적인 여론분위기에서 자기검열에 따른 의견표명의 변화량보다 적대적인 여론분위기상에서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Hayes et al.(2005a)은 자기검열의 경향이 높을수록 특히 자신이 주변에 비춰질 수 있는 공공의 이미지에 더욱 신경 쓰는 경향이 있으며,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의견표명에 더욱 조심스럽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Hayes et al.(2006)은 실제 정치적 활동 참여와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기검열과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간의 부의 영향관계를 파악한 바 있다. Gearhart and Zhang (2014)은 페이스북상에서 자기검열의지와 우호적인

분위기의 토론에서 공개적인 댓글로 논평할 가능성 사이에 부의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한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한다.

H3: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자기검열은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과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침묵의 나선이론과 관련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고립의 두려움과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간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증하였다. Scheufele, Shanahan, and Lee(2001)의 연구에서는 가상적인 상황과 실제적인 상황의 구분 없이 고립의 두려움은 논란이 많은 토론에 참여하고자하는 의지와 부의 관계를 가짐을 밝혔다. Moy et al.(2001)과 Neuwirth et al.(2007)은 특정한 상황에서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표명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상황-특정적인 변수로서 부의 영향관계를 갖는 고립의 두려움의 역할을 검증한 바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 고립의 두려움의 역할을 조명한 Ho and McLeod(2008)의 연구에 따르면 면대면 상황에서 고립의 두려움이 증가할수록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나, 익명성의 속성을 가진 CMC 환경에서는 그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전된 온라인 환경인 SNS상에서는 고립의 두려움과 의견표명의지 간의 부의 관계가 여전히 유의하게 작동함을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etzger(2009)는 SNS상에서 고립의 두려움이 작동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침묵의 나선이론이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가상과 익명의 공간이 아닌 실제 세계의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장이므로 SNS에 참여하는 사용자들 역시 사회적으로 인기가 없거나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으로 인한 고립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낙태 및 동성애 결혼 이슈와 관련하여 SNS상에서의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Gearhart and Zhang(2015)의 연구에서는 고립의 두려움이 SNS상에 이슈에 대한 논평을 게시하는 것을 자제(refraining)하는 것과 정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립의 두려움이 커질수록 공개적인 의견표명은 감소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4: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은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과 자기감시

Lennox and Wolfe(1984)의 연구에 따르면 Snyder(1974)가 제시한 자기감시를 구성하는 27개의 항목들이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과 자기감시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정(approval)을 얻고자하는 동기가 강하며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은 특히 인상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Jones and Tager, 1972; Leary, Barnes, and Griebel, 1986; Millham and Kellogg, 1980), 사회적 인정 및 불인정은 개인이 지각하거나 예상하는 다른 사람들의 인상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회적 인정을 원하거나 불인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각되는

지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이에 맞춰서 자신을 통제할 동기를 부여받는다(Nezlek and Leary, 2002). 따라서 자신이 가진 견해가 타인으로부터 비판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수 의견일 경우 자신을 둘러싼 여론분위기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성과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기감시 성향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대한 관찰과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므로(O’Cass, 2000), 여론분위기를 중심으로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이 변화하면 이에 대응하는 자기감시적 노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과 자기감시 사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한다.

H5: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은 자기감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6 자기감시와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감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감추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에 능하다(Friedman and Miller-Herringer, 1991). Klein, Snyder, and Livingston(2004)은 자기감시 성향이 높은 개인은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특정 태도나 속해있는 조직에 관해 의견 표현이 요청될 때 청중의 특성에 맞춰 태도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자기감시 성향이 높을수록 청중의 반응과 일관된 자기표현이 강화될 수 있고, 이는 청중의 입장과는 다른 사회적 담론에 대한 특정한 입장이나 관점에 대한 표현을 지양함으로써 침묵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서 봤을 때 SNS

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 청중의 시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경계 없는 무대에서는 자기감시 성향이 높을수록 선택적인 자기표현이 발생하고, 사회적 담론에 관한 공개적인 의견표명에 있어 더욱 신중해지리라 하고 기대할 수 있다.

Premeaux and Bedeian(2003)은 조직 안에서 직원들이 의견표명의 경향성을 결정하는 상호작용 요인으로 자기감시의 역할을 실증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감시 성향이 낮은 사람은 내적 통제성(internal locus of control) 및 자존감(self-esteem)과 조직에서의 의견표명이 정의 영향관계를 보여주었으나, 자기감시 성향이 높을수록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기감시 성향이 낮은 경우 지각된 상사의 개방성(perceived top management openness)과 관리자에 대한 신뢰(trust in supervisor)가 높을수록 조직에서의 의견표명이 증가하였으나, 자기감시 성향이 높은 경우 그 상호작용이 부의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6: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자기감시는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연구방법

4.1 측정도구의 개발

본 연구는 설문조사 연구방법을 통해 제시된 연구 모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밝혀진 설문문항을 이용하였으며, 소셜미

디어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모든 항목을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모든 변수들은 신뢰성을 높이고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복수개의 설문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설문 측정을 위한 사회적 담론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을 토픽으로 선정하였다.

지각된 의견지지는 사회적 담론에 관한 자신의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되며 “귀하의 SNS 친구들은 사드 배치에 관한 당신의 견해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까?”, “사드배치에 관해 전반적인 여론분위기와 귀하의 견해는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까?”의 2가지 질문을 사용하였다(Dalisay et al., 2012; Hampton et al., 2014).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은 타인에 의해 비판 받거나 적대적으로 판단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발생하는 불안의 정도를 나타내며, 6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Carleton, McCreary, Norton, and Asmundson, 2006). 자기검열은 자신의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되는 청중에게 자신의 진짜 의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말하며, 6개의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Hayes et al., 2005b). 자기감시는 개인이 당면한 상황적인 신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맞춤으로써 자기표현을 규제하는 정도로 정의되며, Lennox and Wolfe(1984)의 척도를 차용하여 6개의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는 SNS상에서 특정 사회적 담론에 대한 찬반의 토론이 예상될 때, 해당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정도로 정의하였고 Hampton et al.(2014)과 이현지·박종민(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4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표 1>에 요약 정리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항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관련연구
지각된 의견 지지	사회적 담론에 관한 자신의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지각하는 정도	Dalisay et al.(2012) Hampton et al.(2014)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타인에 의해 비판 받거나 적대적으로 판단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발생하는 불안의 정도	Carleton et al.(2006)
자기검열	자신의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지각되는 청중에게 자신의 진짜 의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	Hayes et al.(2005b)
자기감시	개인이 당면한 상황적인 신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맞춤으로써 자기표현을 규제하는 정도	Snyder(1974) Lennox and Wolfe(1984)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SNS상에서 특정 담론에 대한 찬반의 토론이 예상될 때, 해당 토론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정도	Hampton et al.(2014)

4.2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 리서치 회사에 의뢰하여 SNS를 사용하는 전국의 20대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151부의 응답을 받았으며 연속적으로 같은 값을 입력한 불성실한 응답, 사드 배치 이슈에 중립의 입장이며 지각된 의견지지 역시 중간 값을 입력한 표본들을 제거한 92부의 응답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침묵의 나선이론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에게 대한 논의가 거의 없을 뿐더러 이들의 행태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담론에 대해 정도에 따라 찬/반의 태도를 가지며 지각된 의견지지를 측정할 수 있는 응답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McDevitt, Kioussis, and Wahl-Jorgensen, 2003).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55명(59.8%), 여성이 37명(40.2%)이었으며 연령은 20대가 21명(22.8%), 30대가 36명(39.1%), 40대 이상이 35명(38.0%)으로 집계되었다. 응답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26명(28.3%), 대학교 졸업이 54명(58.7%), 대학

원 이상이 12명(13.0%)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은 학생 10명(10.9%), 공무원 6명(6.5%), 회사원 37명(40.2%), 전문직 10명(10.9%), 자영업 7명(7.6%), 기타 22명(23.9%)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2〉와 같이 요약정리하였다.

V. 분석 및 결과

5.1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설문을 PLS (Partial Least Square) 기법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방법은 크게 구분하였을 때 공통요인 분석 기반인 LISREL과 총분산인 주성분을 기반으로 한 PLS로 나뉜다. PLS 기법은 몇 가지 장점으로 인해 최근 들어 경영분야를 포함하여 여러 연구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PLS는 표본의 수가 작거나 혹은 표본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

〈표 2〉 인구 통계적 특성

종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55	59.8
	여자	37	40.2
	합계	92	100.0
나이	20대	21	22.8
	30대	36	39.1
	40대 이상	35	38.0
	합계	92	10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26	28.3
	대학교 졸업	54	58.7
	대학원 이상	12	13.0
	합계	92	100.0
직업	학생	10	10.9
	공무원	6	6.5
	회사원	37	40.2
	전문직	10	10.9
	자영업	7	7.6
	기타	22	23.9
	합계	92	100.0

을 경우에도 분석이 가능하다(Chin, 1998; 김창식·곽기영 2015). 뿐만 아니라 아주 복잡한 모델에 대해서도 유용하게 구조방정식모델을 검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Hair, Ringle, and Sarstedt, 2011). 측정모델에서는 적정수준 이하의 요인적재량 값을 갖는 항목들을 한 번에 하나씩 삭제하는 과정을 거쳐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Anderson and Gerbing, 1988). 측정모델에서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자기검열, 자기감시의 항목 중 요인적재량이 0.5 이하인 항목을 삭제한 후 적절한 모델을 얻을 수 있었다.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고자 관측변수의 요인적재량, 복합신뢰도, 평균분산추출 및 크론바흐 알파 값을

평가하였다. 측정모델 검증에 있어 측정지표들의 검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변수와 각 항목과의 상관 정도를 보여주는 요인적재량 값은 0.5보다 커야 한다(Bagozzi and Yi, 1988). 둘째, 각 잠재변수의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값은 0.7을 상회해야 한다(Chin, 1998).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의 경우 0.7 이상이 권장되나(Hair et al., 2011), 여러 선행연구에서 0.6 ~ 0.7 역시 허용할만한(acceptable) 수준으로 본다(Kline, 2013; George and Mallery, 2003; Loewenthal, 2001). 셋째,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은 0.5 이상이어야 한다(Fornell and Lacker, 1981). 다음 〈표 3〉에

〈표 3〉 집중타당성 분석결과

변수	항목	요인적재량	복합신뢰도	평균분산추출	크론바흐알파
PSO (지각된 의견지지)	PSO1	0.840	0.850	0.739	0.647
	PSO2	0.878			
BFNE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BFNE1	0.723	0.891	0.673	0.838
	BFNE2	0.889			
	BFNE4	0.860			
	BFNE6	0.798			
WSC (자기검열)	WSC1	0.722	0.814	0.522	0.697
	WSC2	0.740			
	WSC3	0.705			
	WSC4	0.723			
SEM (자기감시)	SEM1	0.849	0.883	0.715	0.801
	SEM2	0.842			
	SEM3	0.846			
WSO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WSO1	0.946	0.948	0.820	0.927
	WSO2	0.859			
	WSO3	0.929			
	WSO4	0.885			

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항목은 요인적재량 0.5 기준, 복합신뢰도 0.7 기준, 크론바흐 알파 0.6 기준을 충족하였다. 평균분산추출 값 역시 모든 항목이 0.5 기준을 준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들은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판별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판별타당성은 각 변수에 대한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이 그 변수와 다른 변수와의 상관계수 값을 넘어서는지를 파악하여 확인할 수 있다(Fornell and Larcker, 1981). 〈표 4〉에서 보듯이 각 변수에 대한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은 모든 변수의 상관계수 값을 상회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5.2 가설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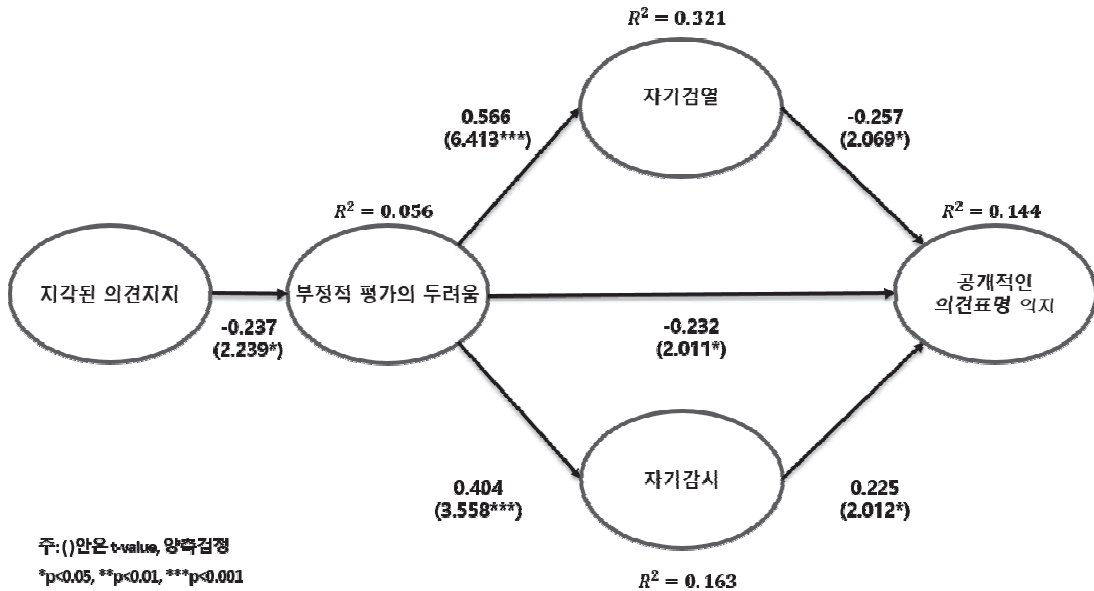
본 연구는 제안된 가설의 검정을 위해 SmartPLS 3.0(Ringle, Wende, and Becker, 2015)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bootstrapping 500회). 구조모델 검정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지각된 의견지지는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요인을 5.6% 설명하고($R^2=0.056$),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은 자기검열 요인을 32.1%($R^2=0.321$), 자기감시 요인을 16.3%를 설명한다($R^2=0.163$). 연구모델의 종속변수인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는 자기검열,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자기감시에 의해 분산의 14.4%가 설명되었다($R^2=0.144$).

〈그림 2〉의 연구모델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

〈표 4〉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변수	WSO	BFNE	SEM	WSC	PSO
WSO	0.905				
BFNE	-0.287	0.820			
SEM	0.015	0.404	0.846		
WSC	-0.287	0.566	0.453	0.723	
PSO	0.554	-0.237	0.024	-0.163	0.859

주) 대각선 값은 각 변수에 대한 AVE 값의 제곱근값을 의미하며, 대각선 아래 값들은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값을 나타냄.



〈그림 2〉 연구모델 분석결과

듯이 가설 H6를 제외하고 H1, H2, H3, H4, H5는 모두 채택되었다. 지각된 의견지지는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beta = -0.237$, t -value=2.239)에 부의 효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은 자기검열($\beta = 0.566$, t -value=6.413)에 정의 효과, 공개적인 의견표명 의지($\beta = -0.232$, t -value=2.011)에 부의 효과, 자기감시($\beta = 0.404$, t -value=3.558)에 정의 효과로 유의한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검열은 공개적인 의견표명 의지($\beta = -0.257$, t -value=2.069)에 부의 효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설 H6에 해당하는 자기감시에서 공개적인 의견표명 의지($\beta = 0.225$, t -value=2.012)로 이어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부의 효과를 예상했던 가설과 다르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가설검정 결과를 정리하

〈표 5〉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value	결과
H1(-)	지각된 의견지지 →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0.237	0.106	2.239	채택
H2(+)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 자기검열	0.566	0.088	6.413	채택
H3(-)	자기검열 →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0.257	0.124	2.069	채택
H4(-)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0.232	0.109	2.011	채택
H5(+)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 자기감시	0.404	0.114	3.558	채택
H6(-)	자기감시 →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0.225	0.112	2.012	기각

여 제시하였다.

VI. 토 의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상에서 사회적 담론에 관한 개인의 의견표명 과정을 침묵의 나선이론을 바탕으로 탐색하고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우선적으로 침묵의 나선이론에서 사용되는 핵심적인 요인들-지각된 의견지지,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의 인과관계를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고립의 두려움 이외에 의견표명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변수-자기검열, 자기감시-를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새로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가설1과 가설4를 통해서 지각된 의견지지에서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으로, 다시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로 이어지는 인과관계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소셜미디어상에서 침묵의 나선이론이 작동함을 증명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드배치와 관련한 사회적 담론에 관해 개인의 지각된 의견지지가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은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드배치에 관한 찬반 논쟁에 있어 자신의 견해가 다수의 의견과 일치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염려나 두려움이 감소하므로,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의향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2와 가설3은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자기검열,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간의 인과관계 경로를 설명하는데, 순차적으로 정의 영향관계, 부의 영향관계가 확인되었다. 사회적 담론의 찬반에 앞서 타인으로부터 비판 받거나 적대적으로 판단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자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청중에게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커지고 이는 소셜미디어상에서 공개적으로 의견표명을 하고자하는 의지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설5와 가설6은 자기감시를 중심으로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과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의 관계를 나타낸다.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은 자기감시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감시에서 공개적인 의견표명 의지로의 경로는 정의 영향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이것은 사회적 담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다수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것으로 여겨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으로 평가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증가할수록 SNS상에서 주변의 상황적 신호

에 맞춰 자기표현을 수정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자기감시 능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감시 능력이 적극적으로 활용될수록 신중하면서도 효과적인 공개적 의견표명이 이루어진다.

문헌연구를 토대로 제시한 자기감시와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간의 부의 영향관계가 정반대의 정의 유 의한 영향관계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 소셜미디어의 특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실제 SNS 사용자의 온라인 네트워크 규모와 그 속성에 따라서 자기감시 능력과 공개적인 의견표명의 관계가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NS 상에서의 네트워크 관계들이 불특정 다수를 포함하는 여러 준거집단들의 집합체가 아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준거집단 집합일 경우 자기감시 능력의 증가에 따라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가 강화될 수 있다. Metzger(2009)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사용자들이 사회적으로 인기 없는 견해에 대해서 침묵하게 되는 까닭은 자칫 의견표명을 잘못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인상으로 비춰질 경우 실제 오프라인에서의 친구관계까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면이 있는데, 만약 사용자가 실제 오프라인 관계가 손상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면 위와 같은 주장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SNS 사용자의 온라인 네트워크의 규모가 크지 않거나, 해당 친구 관계가 사용자의 준거집단이나 혹은 가까운 내집단 구성원들로 되어있을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의견표명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청중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SNS상에서 개인이 여론분위기와 괴리감을 느낄지라도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맞춰 청중에 대한 예측범위 안에서 효과적인 자기표현 수정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의견표명 행위를

할 수도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SNS가 내포하고 있는 공개적인 영역과 프라이버시 영역을 구분 짓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서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사용자가 SNS상에서 비춰지는 자신의 인상을 통제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하여 자기감시 능력과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와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자신의 포스iting이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친구의 범위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환경이 확대되고 SNS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상당수의 사용자들이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안전한 의견표명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가정해볼 경우, 그러한 조건에서는 자기감시 능력의 향상에 따라 얼마든지 사회적 담론에 대한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존재한다. 즉 선별적인 청중에게만 자신의 의견표명 행위를 공개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상 획득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감시와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 간의 관계는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개별 SNS의 기능적 특성과 이에 대한 사용자들의 활용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Ⅶ.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이론적 관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사회적 담론에 관한 개인의 의견표명 과정을 설명하는 여론형성 모델을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해 구체화하였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침묵의 나선이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회주제의 맥락에서 특정 변수들에 대한 인과

관계를 살펴보는 미시적인 연구들은 많이 있으나 이론 자체에 대한 정교화를 목표로 개념적으로 중요한 변수들을 하나의 인과관계 모델을 통해서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 모델을 통해서 침묵의 나선이론의 핵심적인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검열과 자기감시와 같은 추가적인 변수들이 그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침묵의 나선이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추가적인 변수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확장된 연구 모델을 제시하여, 향후 여론형성 과정과 개인의 의견표명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자기검열과 자기감시 변수 간의 개념적인 차이를 본 연구를 통해서 재정립 하였다. 일부 선행연구의 문헌연구에서 자기검열과 자기감시를 용어의 유사성 때문에 동일한 의미로 혼동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두 변수의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연구 또한 드물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상에서 성소수자 괴롭힘(gay bullying)과 관련한 주제로 침묵의 나선이론을 살펴본 Gearhart and Zhang(2014, p.19)의 문헌연구에서는 자기검열과 자기감시를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논문에서 인용한 Hayes et al.(2006, p.265)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검열과 자기감시 사이에 개념적인 혼동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두 변수의 차이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주석으로만 처리되어 있어 개념적으로 두 변수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침묵의 나선이론을 바탕으로 자기검열과 자기감시를 포함하여 의견표명지를 설명하는 연구모델을 제시하고 실증분석하여 두 변수의 차별화된 역할에 대한 이론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소셜미디어 환경에서의 여론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침묵의 나선이론을 맥락에 맞게 적용함에 있어 인상관리이론과의 접점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자기감시는 대표적으로 인상관리이론에서 자기표현과 관련하여 연구되어온 심리학적 속성을 반영하는 변수이다. 해당 변수를 본 연구에서 침묵의 나선이론을 바탕으로 새롭게 활용하여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고, 문헌연구를 기초로 한 가설을 벗어난 예상 밖의 실증결과를 보여주어 SNS를 사용하는 사용자 행태 연구에 새로운 부분을 확인하였다.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남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을 고려하여 프로필을 설정하거나, 친구들의 게시물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공유하는 등의 여러 가지 연출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인상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견표명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제시한다.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국내의 SNS 환경에서도 침묵의 나선이론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SNS상의 사용자 행동과 여론형성 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소셜미디어 환경이 개인의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중심으로 하는 여론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사회적 담론에 대한 여론형성 과정과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미디어 환경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꼽을 수 있는데, 당시에 광장 시위를 이끌었던 여러 요인들 중 하나로 새롭게 등장한 CMC 미디어 환경에 대한 연구가 주목 받았다. 그 이후 무려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수많은 사회적 소통 과정이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크게는

국가 정책, 기업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 심지어 기대를 받으며 신규 출시된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초기 여론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소셜미디어에서 경계의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SNS에서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부분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사용자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들이 여론분위기를 형성하여 개인의 의견표명 행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환경을 바탕으로 한 여론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본 연구는 SNS상에서의 개인의 의견표명 과정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침묵의 나선이론의 주요 종속변수인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를 SNS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아요 누르기, 공유하기, 댓글 작성하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구성하는 주요한 기능들을 고려하여 소셜미디어 환경에 맞게 측정하였다. 침묵의 나선이론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종속변수인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가 소셜미디어 맥락에 맞게 수정되어도 여전히 이론적으로 유효함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 혹은 관련 연구자들은 여론분위기를 파악함에 있어 SNS상의 좋아요, 공유, 댓글의 수와 내용 같은 정보들의 추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욱이 사용자들의 여론분위기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댓글이나 뉴스정보 등에 대한 관찰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관점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나 제품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나 루머들 혹은 가짜뉴스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초기에 제대로 파악하고 진단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정보가 SNS를 통해 쉽게 퍼져나갈 수 있고, 이로 인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여론분위기를 잘못

파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초기의 여론분위기가 형성되고 기업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의견표명과 관련한 좋아요, 공유, 댓글이 급증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입장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SNS 사용자들이 특정 사회적 담론에 대한 여론분위기 지각을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다양한 전문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소셜미디어상에서 개인의 의견표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들을 분석함으로써 SNS 사용자들의 행동과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개인의 의견표명 과정은 비단 여론형성 과정에서 뿐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요인이다. 의견표명은 SNS상에서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생성하는 정보들-정책과 관련한 의견, 브랜드 평가, 제품에 대한 피드백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구전 효과의 관점에서 다른 사용자들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SNS상에서 공개적인 의견표명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요인들을 살펴봤다는 측면에서 향후 SNS 사용자들의 심리적 요인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파악하고자하는 정부 및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심리적 관점에서 인식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전체 151개의 표본중 사회적 찬/반 이슈에 중립의 입장이며 지각된 의견지지 역시 중간 값을 입력한 표본들을 통제하고 분석을 진행함에 따라,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던 데이터수가 상대적으로 작아진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누락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침묵의 나선이론의 주요 변수들을 더욱 정교하게 측정하는 도구 및 척도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요청된다. 추가적으로 이슈의 찬/반에서 중립의 입장인 표본들을 실증분석 대상으로 포함시켜 침묵의 나선이론을 검증하는 부분 또한 이론적으로 면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사드배치라는 단일한 사회적 담론에 대해서만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지각을 측정하였으므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침묵의 나선효과를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즉 사회적 담론의 유형과 속성에 따라서 침묵의 나선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지를 추후에 진행하는 연구에서 고려하여 여론과 사용자들의 지각에 대한 이해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현재 시점의 여론분위기 지각만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현재 시점에서의 여론분위기 지각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담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미래의 시점에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될지에 대한 전망 역시도 침묵의 나선효과와 발생여부와 중요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향후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미래 시점의 여론 분위기 지각 또한 추가적으로 측정하여 이론적 함의를 더욱 풍성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창식 · 광기영(2015), "조직구성원의 네트워크 위치가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 **지식경영연구**, 16(2), 67-89.
- 김효준 · 광기영(2014), "트랜잭티브 메모리 역량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3(3), 745-769.
- 이현지 · 박종민(2015), "한국형 SNS 사용자 당파적 정치행동이론의 제안," **한국언론학보**, 59(3), 423-451.
- Anderson, J. C., and Gerbing, D. W.(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sch, S. E.(1955), "Opinions and Social Pressure," *Scientific American*, 193(5), 31 - 35.
- Bagozzi, R. P., and Yi, Y.(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aumeister, R. F., and Leary, M. R.(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
- Carleton, R. N., McCreary, D. R., Norton, P. J., and Asmundson, G. J.(2006), "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revised," *Depression and Anxiety*, 23(5), 297-303.
- Chin, W. W.(1998), "The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295(2), 295-336.
- Clemente, M., and Roulet, T. J.(2015), "Public Opinion as a Source of Deinstitutionalization: A "Spiral of Silence" Approa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0(1), 96-114.
- Dalisay, F., Hmielowski, J. D., Kushin, M. J., and Yamamoto, M.(2012), "Social Capital and the Spiral of Sil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4(3), 325-345.
- Fandt, P. M., and Ferris, G. R.(1990), "The Management of Information and Impressions: When Employees Behave Opportunisticall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45(1), 140-158.
- Fornell, C., and Larcker, D. F.(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9-50.
- Friedman, H. S., and Miller-Herringer, T.(1991), "Nonverbal Display of Emotion in Public and in Private: Self-monitoring, Personality, and Expressive C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5), 766-775.
- Gangestad, S. W., and Snyder, M.(2000), "Self-monitoring: Appraisal and Reappraisal," *Psychological Bulletin*, 126(4), 530-555.
- Gearhart, S., and Zhang, W.(2014), "Gay Bullying and Online Opinion Expression: Testing Spiral of Silence in the Social Media Environment,"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32(1), 18-36.
- Gearhart, S., and Zhang, W.(2015), "Was It Something I Said?" "No, It Was Something You Posted!" A Study of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in Social Media Context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8(4), 208-213.
- George, D., and Mallery, P.(2003), *SPSS for Windows Step by Step: A Simple Guide and Reference 11.0 Update*, 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Gilbert, D., Fiske, S. T., and Lindzey, G.(1998),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NewYork: McGraw-Hill.
- Hair, J. F., Ringle, C. M., and Sarstedt, M.(2011), "PLS-SEM: Indeed a Silver Bullet,"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9(2), 139-152.
- Hampton, K. N., Rainie, H., Lu, W., Dwyer, M., Shin, I., and Purcell, K.(2014), *Social Media and the "Spiral of Silence"*, Washington, DC: PewResearch Center.
http://www.mysocialnetwork.net/downloads/offprint/Social-networks-and-debate_0826141.pdf
- Hayes, A. F., Glynn, C. J., and Shanahan, J.(2005a), "Willingness to Self-censor: A Construct and Measurement Too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7, 298-323.
- Hayes, A. F., Glynn, C. J., and Shanahan, J.(2005b), "Validating the Willingness to Self-censor Scale: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the Climate of Opinion on Opinion Expr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7(4), 443-455.
- Hayes, A. F., Glynn, C. J., Shanahan, J., and Uldall, B.(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Willingness to Self-censor," In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 Nashville, TN.
- Hayes, A. F., Matthes, J., and Eveland Jr, W. P. (2013), "Stimulating the Quasi-statistical Organ: Fear of Social Isolation Motivates the Quest for Knowledge of the Opinion Climate," *Communication Research*, 40(4), 439-462.
- Hayes, A. F., Scheufele, D. A., and Huges, M. E. (2006), "Nonparticipation as Self-censorship: Publicly Observable Political Activity in a Polarized Opinion Climate," *Political Behavior*, 28(3), 259-283.
- Ho, S. S., and McLeod, D. M.(2008), "Social-psychological Influences on Opinion Expression in Face-to-face and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ommunication Research*, 35(2), 190-207.
- Huang, H.(2005), "A Cross-cultural Test of the Spiral of Sil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7(3), 324-345.
- Jones, S. C., and Tager, R.(1972), "Exposure to Others, Need for Social Approval, and Reactions to Agreement and Disagreement from

- Other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6(1), 111-120.
- Kim, K., and Markman, A. B.(2006), "Differences in Fear of Isolation as an Explanation of Cultural Differences: Evidence from Memory and Reasoning,"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3), 350-364.
- Kim, S. H., Han, M., Shanahan, J., and Berdayes, V.(2004), "Talking on 'Sunshine in North Korea': A Test of the Spiral of Silence as a Theory of Powerful Mass Medi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6(1), 39-62.
- Klein, O., Snyder, M., and Livingston, R. W.(2004), "Prejudice on the Stage: Self-monitoring and the Public Expression of Group Attitud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3(2), 299-314.
- Kline, P.(2013), *Handbook of Psychological Testing*, Routledge.
- Leary, M. R., Barnes, B. D., and Griebel, C.(1986), "Cognitive, Affective, and Attributional Effects of Potential Threats to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4), 461-474.
- Lennox, R. D.,and Wolfe, R. N.(1984), "Revision of the Self-monitoring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6), 1349-1364.
- Leone, C., and Corte, V.(1994), "Concern for Self-presentation and Self-congruence: Self-monitoring, Machiavellianism, and Social Conflic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22(3), 305-312.
- Loewenthal, K. M.(2001), *An Introduction to Psychological Tests and Scales*, Psychology Press.
- Marwick, A. E., and Boyd, D.(2011), "I Tweet Honestly, I Tweet Passionately: Twitter Users, Context Collapse, and the Imagined Audience," *New Media and Society*, 13(1), 114-133.
- Matthes, J., Hayes, A. F., Rojas, H., Shen, F., Min, S. J., and Dylko, I. B.(2012), "Exemplifying a Dispositional Approach to Cross-cultural Spiral of Silence Research: Fear of Social Isolation and the Inclination to Self-censor,"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4(3), 287-305.
- Matthes, J., Rios Morrison, K., and Schemer, C. (2010), "A Spiral of Silence for Some: Attitude Certainty and the Expression of Political Minority Opinions," *Communication Research*, 37(6), 774-800.
- McDevitt, M., Kioussis, S., and Wahl-Jorgensen, K. (2003), "Spiral of Moderation: Opinion Expression in Computer-mediated Discu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5(4), 454-470.
- Metzger, M. J.(2009), *The Study of Media Effects in the Era of Internet Communication*, In R. L. Nabi and M. B. Oliver (Eds.), *The SAGE Hand Book of Media Processes and Effects* (pp.561-576), Los Angeles, CA: SAGE.
- Milgram, S.(1961), "Nationality and Conformity," *Scientific American*, 205(6), 45-51.
- Millham, J., and Kellogg, R. W.(1980), "Need for Social Approval: Impression Management or Self-decep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4(4), 445-457.
- Moy, P., Domke, D., and Stamm, K.(2001), "The Spiral of Silence and Public Opinion on Affirmative Actio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8(1), 7-25.
- Mutz, D. C., and Silver, L.(2014), "Spiral of Silence: Hearing the other Side in the 21st Century,"

- In W. Donsbach, C. T. Salmon, and Y. Tsfati(Eds.), *The Spiral of Silence: New Perspectives on Communication and Public Opinion* (pp. 75-91), New York, NY: Taylor and Francis.
- Neuwirth, K., Frederick, E., and Mayo, C.(2007), "The Spiral of Silence and Fear of Isol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7(3), 450-468.
- Nezlek, J. B., and Leary, M. R.(2002),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presentational Motives in Daily Social Inter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2), 211-223.
- Noelle-Neumann, E.(1973), "Return to the Concept of the Powerful Mass Media," *Studies in Broadcasting*, 9, 67-112.
- Noelle-Neumann, E.(1977), "Turbulences in the Climate of Opinion: Methodological Applications of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Public opinion quarterly*, 41(2), 143-158.
- Noelle-Neumann, E.(1979), "Public Opinion and the Classical Tradition: A Re-evalu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3(2), 143-156.
- Noelle-Neumann, E.(1991), "The Theory of Public Opinion: The Concept of the Spiral of Silence,"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14(1), 256-287.
- Noelle-Neumann, E.(1993), *The Spiral of Silence: Public Opinion, Our Social Ski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 Cass, A.(2000), "A Psychometric Evaluation of a Revised Version of the Lennox and Wolfe Revised Self-monitoring Scale," *Psychology and Marketing*, 17(5), 397-419.
- Premeaux, S. F., and Bedeian, A. G.(2003), "Breaking the Silence: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monitoring in Predicting Speaking up in the Workplace,"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40(6), 1537-1562.
- Price, V., and Allen, S.(1990), "Opinion Spirals, Silent and Otherwise: Applying Small-group Research to Public Opinion Phenomena," *Communication Research*, 17(3), 369-392.
- Rainie, L., and Smith, A.(2012), *Social Networking Sites and Politics*, Washington, DC: Pew Internet and American Life Project.
- Ringle, C. M., Wende, S., and Becker, J. M.(2015), *SmartPLS 3*, Boenningstedt: SmartPLS GmbH. <http://www.smartpls.com>
- Rosenberg, J., and Egbert, N.(2011), "Online Impression Management: Personality Traits and Concerns for Secondary Goals as Predictors of Self-presentation Tactics on Facebook,"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7(1), 1-18.
- Salmon, C. T.,and Kline, F. G.(1985), "The Spiral of Silence Ten Years Later: An Examination and Evalu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Yearbook 1984*.
- Salmon, C. T., and Neuwirth, K.(1990), "Perceptions of Opinion "Climates" and Willingness to Discuss the Issue of Abortion," *Journalism Quarterly*, 67(3), 567-577.
- Scheufele, D. A., and Moy, P.(2000), "Twenty-five Years of the Spiral of Silence: A Conceptual Review and Empirical Outlook,"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2(1), 3-28.
- Scheufele, D. A., Shanahan, J., and Lee, E.(2001), "Real Talk: Manipulating the Dependent Variable in Spiral of Silence Research," *Communication Research*, 28(3), 304-324.
- Schlenker, B. R., and Leary, M. R.(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 92(3), 641-669.
- Shoemaker, P. J., Breen, M., and Stamper, M.(2000), "Fear of Social Isolation: Testing an Assumption from the Spiral of Silence," *IRISH Communication Review*, 8(1), 8.
- Snyder, M.(1974), "Self-monitoring of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4), 526-537.
- Snyder, M., Gangestad, S., and Simpson, J. A.(1983), "Choosing Friends as Activity Partners: The Role of Self-monitor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5), 1061-1072.
- Tocqueville, A. D.(1856), *L'Ancien Régime et la Révolution*, Paris: Michel Levy Freres.
- Turnley, W. H., and Bolino, M. C.(2001), "Achieving Desired Images while Avoiding Undesired Images: Exploring the Role of Self-monitoring in Impression Manage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2), 351.
- Walters, R. H., Marshall, W. E., and Shooter, J. R.(1960), "Anxiety, Isolation, and Susceptibility to Social Influence," *Journal of Personality*, 28(4), 518-529.
- Watson, D., and Friend, R.(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4), 448-458.
- Willnat, L., Lee, W., and Detenber, B. H.(2002), "Individual-level Predictors of Public Out-spokenness: A Test of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in Singapor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4(4), 391-412.

〈부록〉 변수의 측정문항

측정개념	변수	측정 문항	참고문헌
지각된 의견지지	PSO1	사드 배치에 관한 귀하의 견해가 전반적인 여론분위기와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까?	Dalisay et al.(2012) Hampton et al.(2014)
	PSO2	귀하의 SNS 친구들은 사드 배치에 관한 당신의 견해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까?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BFNE1	SNS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걱정한다.	Carleton et al.(2006)
	BFNE2	SNS상에서 사람들이 나에 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신경을 쓴다.	
	BFNE3	SNS상에서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BFNE4	SNS상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 걱정한다.	
	BFNE5	SNS상에서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신경 쓴다.	
	BFNE6	나는 종종 SNS상에서 잘못 말하거나 잘못 행동할까 걱정한다.	
자기검열	WSC1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내 의견을 SNS상에 표현하기가 어렵다.	Hayes et al.(2005b)
	WSC2	SNS상에서 나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나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WSC3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달리 할 때, 나는 그것에 대해 논하기보다는 그들 의견에 함께하고 싶다.	
	WSC4	누군가 내게 의견을 묻고 내게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불편함을 느낀다.	
	WSC5	나는SNS상에서 오직 주위의 친구들 또는 내가 신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내 마음을 말하는 경향이 있다.	
	WSC6	SNS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지 않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용하게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	

(계속)

측정개념	변수	측정 문항	참고문헌
자기감시성	SEM1	SNS상에서 만약 다른 무언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나는 나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O'Cass(2000)
	SEM2	나는 SNS상에서 내가 친구들에게 주고 싶은 인상에 따라 그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조절할 수 있다.	
	SEM3	SNS상에서 내가 표현하는 이미지가 먹혀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것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	
	SEM4	나는 종종 SNS를 통해서 사람들의 진짜 감정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SEM5	나는 SNS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변화조차도 민감하게 알 수 있다.	
	SEM6	나는 SNS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표현의 동기를 상당히 직관적으로 잘 알 수 있다.	
공개적인 의견표명 의지	WSO1	사드 배치 이슈와 관련하여 SNS상에서 찬반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귀하의 견해를 댓글로 주장할 의향이 있습니까?	Hampton et al.(2014)
	WSO2	사드 배치 이슈와 관련하여 SNS상에서 찬반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귀하의 견해와 상당히 일치하는 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를 의향이 있습니까?	
	WSO3	사드 배치 이슈와 관련하여 SNS상에서 찬반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귀하의 견해와 상당히 일치하는 글을 귀하의 SNS상에서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까?	
	WSO4	귀하께서 자주 이용하는 SNS상에서 사드 배치 논란이 토론의 주제로 나왔을 때, 귀하께서는 해당 토론에서 어느 정도로 본인의 견해를 밝힐 의향이 있습니까?	

The Effects of Motivational Factors of SNS Users' Opinion Expression on Social Discourse: Focusing on Self-censorship and Self-monitoring

Dong-In Shin* · Kee-Young Kwahk**

Abstract

Based on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this study drew the motivational factors of SNS users' opinions on social discourse, and examined the processes by which individuals make social voices or become silent in social media according to the climate of opinion. This study suggested perceived opinion support,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elf-censorship and self-monitoring as motive factors of opinion expression, and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self-censorship and self-monitoring on willingness to speak out. To verify this research model, data were collected from adults using SNS in Korea, and we conducted analysis by PLS(Partial Least Square) technique.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the perceived opinion suppor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howed negative influence on the willingness to speak out. In additio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howed a positive impact on self-censorship and self-monitoring, but the path of each of the two variables to the willingness to speak out showed different results—the former showed a negative impact, and the latter showed positive effects. This study has found a theoretical limitation that has been overlooked in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and suggests a new theoretical framework to reveal the process of public opinion formation. Furthermore, we applied this to the social media environment and empirically verified the specific causal mechanism of the individual opinion process.

Key words: Spiral of Silence Theory, SNS, Self-censorship, Self-monitoring, Opinion Expression

* Kookmin University, First Author

** Kookmi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저자 신동인은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 전문대학원에서 비즈니스IT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이다.
- 저자 광기영은 현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비즈니스IT 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관심분야는 소셜네트워크분석 및 응용, 데이터 애널리틱스, 지식경영 등이다.